

國際去來法研究

創刊號

貿易 紛爭의 解決

國際去來法學會

1992

國際貿易法研究 創刊號

The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貿易紛爭의 解決

在學者之間已經形成一個廣泛的觀點，即在國際貿易和商務法律領域內，存在著一個重要問題：即如何解決貿易紛爭。這是一個極為複雜的問題，因為它涉及到許多不同的法律制度、司法管轄權、仲裁程序以及其他因素。在傳統上，國際貿易紛爭通常是由各國政府通過外交途徑來解決的。然而，在現代化的進程中，越來越多的企業選擇通過法律途徑來解決他們之間的糾紛。

在解決貿易紛爭時，一個重要的考慮因素是選擇合適的法律管轄權。這可能涉及到對合同條款的解釋、適用的法律規範以及相關的司法管轄權。在某些情況下，當事人可能同意將糾紛提交到某個特定的法院或仲裁機構進行審理。這種情況下，法律管轄權將由該法院或仲裁機構根據相關的法律規範來確定。

國際貿易法學會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1992

創刊辭

오늘날과 같이 貿易環境이 國內外의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通商摩擦이 激化되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날 길은 貿易立國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길이 아닌가 한다. 國際去來法學會는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狀況을 直視하고 國際去來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高度의 專門知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法理論的的研究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大學教授, 政府公務員, 法曹人, 企業人, 金融人 등이 힘을 합쳐 1990년 11월 17일 創立한 純粹한 民間學術研究團體이다.

本 學會는 創立 후 每月 月例研究發表의 모임을 갖고 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1년 11월 1일 2일에는 學會創立 1주년을 記念하여 "國際貿易紛爭의 解決"을 주제로 한 國際세미나를 開催하여 다대한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나아가 學會의 研究活動이 본 궤도에 오르면 그 業績을 刊行할 會誌의 發刊에 대한 준비도 하여 왔다.

특히 學會誌는 그 發刊이 너무 늦어져도 곤란하고, 지난해 11월 國際會議에서의 발표결과에 대한 國內外의 관심과 요청도 적지 않아서 月例研究모임에서 발표된 것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선 學會創立記念 國際세미나에서 발표된 것만을 上梓하여 國際去來法學會誌 創刊號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本 創刊號의 內容은 國際去來法分野의 世界的 碩學인 뉴욕大의 Andreas Lowenfeld教授, 하바드法大의 William Alford教授, 폴랜드의 Stanislaw Soltysinski教授, 美國의 저명한 辯護士 William Weiland博士 및 英國의 중진 辯護士 David Perry博士등 外國 發表者와 國內에서 崔公雄 清州地方法院長, 國際去來分野의 權威인 申雄湜博士, 徐憲濟 中央大教授, 趙大衍, 孫京漢 辯護士 등 學界와 實務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회원들이 발

표를 한 것들이다. 이들 수록된 논문들은 發表者들이 자신의 풍부한 紛爭解決의 경험을 사례로서 취급함과 동시에, 法理論的 체계와 새로운 경향등을 다룬 우수한 業績이라고 생각되므로 이 글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法學의 발전과 國際貿易紛爭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 를 바란다. 나아가 本 學會誌가 앞으로 會員들의 研究結果를 公刊하는 매체로서 國際去來法 分野의 研究 教育 및 國際協力에 커다란貢獻을 하는 共同의 研鑽場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끝으로 지난 國際學術會議에서 발표되어 本誌에 실린 國內外 論文들이 널리 읽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어논문은 영어로, 영어논문은 국어로 翻譯 및 編輯을 해 주신 金容煥 辯護士 등 會員여러분의 기여와, 이 創刊號를 製作하는데 책임을 맡아주신 國民大 法大 金文煥 教授의 노고에 대하여 정중한 感謝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本會會長宋相現於1992年4月1日宣讀